

광주·전남 종부세 대상 급증...체납액 3배 폭증

지난해 2만1576명 부과...광주 1인당 세액 764만원으로 2배 ↑
광주국세청 체납액 279억으로 전년대비 196.8% ↑ '전국 3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종부세 납부 세액은 전년 대비 214% 넘게 늘었고, 전남 역시 96% 상당 급증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당히 지역 종부세 체납액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제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1만2237명으로 전년(8343명) 대비 46.67%(389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액은 297억3400만원에서 934억3600만원으로 무려 214.24%(637억200만원)나 급증해 3배 이상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세액으로 보면 356만원에서 764만원으로 1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의 종부세 부과 대상도 전년(5243명) 대비 78.12%(4096명) 증가한 9339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세액도 전년(589억2600만원)보다 95.93%(565억2600만원)이나 늘어난 1154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로만 놓고 보면 증가율은 더 커진다. 광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665억300만원으로 전년(133억2900만원)보다 398.93%(531억7400만원)나 급증했고, 전남지역 역시 같은 기간 65억9800만원에서 360억9700만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447.10%(294억99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당시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 등을 동시에 상향 조정함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세액이 급증하는 등 세부담에 커지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액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79억원으로 전년(94억원) 대비 196.80%(185억원)가 늘었다. 이는 대전청(236.6%)과 인

천청(224.9%)에 이어 7개 지방국세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체납액 역시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기술지주회사 'SPLASH 2022' 성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서 대학창업펀드 투자기업 추천·해외진출 등 지원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SPLASH 2022'에 참가한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8개사와 대학창업펀드 투자기업 8개사 등을 상대로 상담과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전남대기술지주회사(대표 민정준)는 지난 5-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PLASH 2022'에서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및 운용 중인 대학창업펀드 투자기업 등을 추천·지원해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SPLASH 2022' 기간 동안 진행된 총상금 2억원이 주어지는 IR 피칭 챌린지에서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및 지스타트업(G-Startup) 대학창업 뉴딜펀드 투자기업인 전기전자 및 전동킴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제조기업 ㈜코리아모빌리티와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튜닝이 공동 1위를 차지해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2위는 지스타트업 대학창업 뉴딜펀드와 빛가람 1호 대학창업개인투자조합 투자기업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첨단랩이 차지해 상금 3000만원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이번 행사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8개사(㈜코리아모빌리티, ㈜튜닝, ㈜인바이러스테크, ㈜씨엔큐어, ㈜레토드, ㈜한결헬스케어, ㈜오토웰즈, ㈜엑스알에이아이)와 대학창업펀드 투자기업 8개사(㈜첨단랩, ㈜바이오코리아, ㈜비에이에너지, ㈜지니소프트, ㈜

아토모스, ㈜넷은, ㈜인디제이, ㈜모토모)가 참가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도 지원했다. 또한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행사 기간 독립부스를 설치해 초기창업기업 발굴, 참여기업 상담, 투자 상담, Meet-up 등을 진행해 전남대기술지주회사의 역할 등도 홍보했다. 전남대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올해도 추가 펀드 결성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창업지원 인프라와 유기적 연계하고 있다"면서 "초기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성장과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경력단절 예방의 날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9층 롯데시네마에서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YWCA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2'에서 금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와 '비스포크 제트'.

삼성전자 '국제 디자인 공모전' 휩쓸어

금상 2개 등 42개 수상

삼성전자가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22'에서 금상 2개, 은상 5개, 동상 1개, 파이널리스트 34개 등 총 42개의 상을 수상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1980년부터 주관해온 IDEA는 디자인 혁신성과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를 심사해 ▲소비자 기술 ▲가정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등 20개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스마트폰·TV·가전 등의 제품부터 UX와 선행 콘셉트 디자인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였다. 우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의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와 '비스포크 제트'가 금상에 선정됐다.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는 냉장·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로 구성된 주방 가전 조합으로, 여러 가지 색상과 소재 중 원하는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주방 가구에 맞춰 깔끔하게 설치 가능한 빌트인 룩 디자인이 적용돼 주방 인테리어를 조화롭게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스포크 제트'는 먼지 배출과 충전 거치대가 합쳐진 일체형 정정스테이션과 비스포크 가전의 인기 색상이 적용된 무선청소기로, 공간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췄다. 이밖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지역 특화 요소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디자인도 주목받았다.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스마트싱스 앱으로 연동해 홈 IoT 기기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 '갤럭시 업사이클링 랫 홈', 29종의 인도 언어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스마트폰 키보드 UX '삼성 인디어 키보드', 서남아시아의 조리 환경에 맞춰 후드-에어컨-공기정화 기능을 결합한 콘셉트 디자인 '삼성 에어 후드' 등이 은상을 수상했다. 김진수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부사장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변화하는 가치에 맞는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은 물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노란우산 홍보모델에 도전하세요"

중기중앙회 내달 21일까지 모집

올해는 개그맨 김준현과 가수 양지은이 노란우산 홍보대사로 TV광고를 출연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모델을 홍보포스터로 위촉해 사업 현장에서 노란우산 특장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노란우산 출범 15주년을 맞아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기업자나 가족 홍보모델을 통해 노란우산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코스피	2449.54(+65.26)
↑ 코스닥	796.79(+18.98)
↓ 금리(국고채 3년)	3.536(-0.007)
↓ 환율(USD)	1373.60(-7.20)